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신수용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780 · E-mail : shinsy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르노 그룹, 탈탄소화 주력을 위해 신(新)에너지 연합 가입

● 유럽 물류 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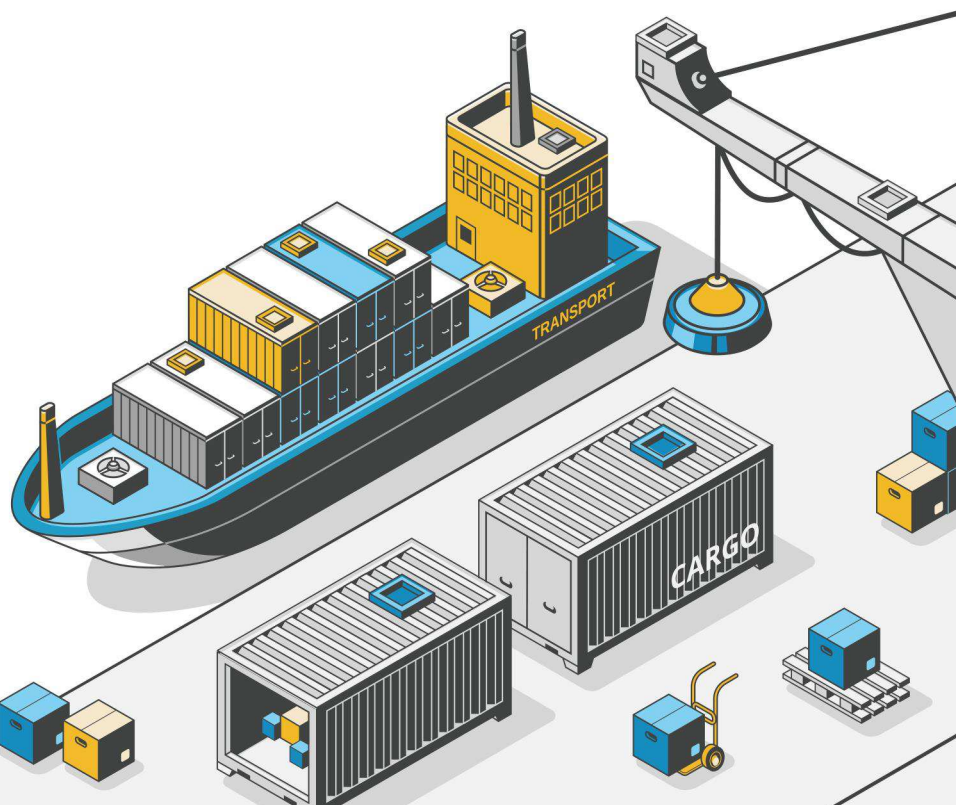
- 홍해 리스크 지속으로 유럽행 철송 수요 증가
장기화 전망...공급망 다변화 추진 필요

● 미·중남미 물류 시장 동향

- 국제항만노동자협화-미(美) 해운 연합 협상 결렬로
미(美) 항만 파업 우려

● 공지 사항

- 2024년 『우수물류기업 인증』 모집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르노 그룹, 탈탄소화 주력을 위해 신(新)에너지 연합 가입

- 주요 자동차 기업인 르노 그룹(Renault Group)은 최근 운송 및 물류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신(新)에너지 연합(New Energies Coalition)에 가입할 것을 발표
 - 르노 그룹은 운송 및 물류 산업에서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(新)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
 - 신(新)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가스 등으로 변화시켜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반응으로 전기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의미함
 - 특히 신(新)에너지 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주행 중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보유함
- 르노 그룹의 탈탄소화에 대한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신(新)에너지 연합의 비전과 일치
 - 르노 그룹은 2030년까지 탄소 발자국을 2019년 대비 30% 감소하기로 공약함
 - 또한 이번 연합 가입을 통해 산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화물 운송 및 공급망 운영에 AI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임

르노 그룹과 신(新)에너지 연합

**Renault
Group**



자료 : <https://media.renaultgroup.com/> (검색일: 2024.08.16.)

- 2019년 CMA CGM 그룹에서 시작한 신(新)에너지 연합(New Energies Coalition)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물류·공급망 기업의 협력을 주도 중
 - 본 연합은 CMA CGM 그룹의 CEO인 로돌프 사드(Rodolphe Saadé)가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 12월에 설립했으며 운송 및 물류 분야의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임
 - 현재 해당 연합에 가입한 기업은 Airbus, Air Liquide, ArcelorMittal, AWS, Bureau Veritas, Crédit Agricole CIB, Carrefour, Cluster Maritime, CMA CGM, Engie,

GRTgaz, Kuehne+Nagel, Michelin, PSA International, Rolls Royce, Schneider Electric, Total Energies, Veolia, Wartsila 등이 있음

- 신(新)에너지 연합에 가입한 기업들은 운송 및 물류 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및 기술 솔루션 개발에 주력
 - 운송 및 물류 부문의 전체 가치사슬은 제조기업 및 에너지 생산자와 최종 사용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합은 연구개발과 산업 간 협력에 주력하고 있음
 - 특히 협력적 접근 방식은 운송(해상, 항공 및 도로) 및 물류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신(新)에너지와 기술 부문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함
- 르노 그룹은 신(新)에너지 연합의 가입을 통해 저탄소 운송수단 개발에 한 단계 더 진전
 - 르노 그룹은 해당 연합의 가입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 시장에서 라스트 마일(last mile) 배송의 탈탄소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르노 그룹은 운송 단위 당 킬로미터 최적화(optimization of kilometers per transport unit) 등 물류 분야에서의 탈탄소화 사례도 공유할 예정임

국제항만노동자협회-미(美) 해운 연합 협상 결렬로 미(美) 항만 파업 우려

- 미국 동부·동남부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(ILA, International Longshoremen's Association)와 미국 해운 연합(USMX, US Maritime Alliance)의 협상 결렬
 -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일자리 축소와 고용 안정성 타격을 우려하며 항만 자동화를 반대해 왔으며 이번 협상 또한 APM 터미널과 머스크(Maersk)가 항만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조원의 노동력 없이 터미널 내 트럭 운용과 관련해 발생함
 -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항만 내 자동화와 관련해 약 76%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
 - 이와 관련해 머스크사 대변인은 APM 터미널은 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미국 해운 연합 간 노사 계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조가 우려하지 않도록 계속 협력할 것을 발표함
 - 국제항만노동자 협회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, 계약 만기일인 2024년 9월 30일 이후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통보함
 - 만일 2024년 10월 파업한다면 1977년에 실시된 파업 이후 47년 만이며 이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미(美) 해운 연합 협상 결렬

미국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



컨테이너 화물 운송 중인 머스크



자료 : <https://www.hansbiz.co.kr/news/>, <https://m.g-enews.com> (검색일: 2024.08.16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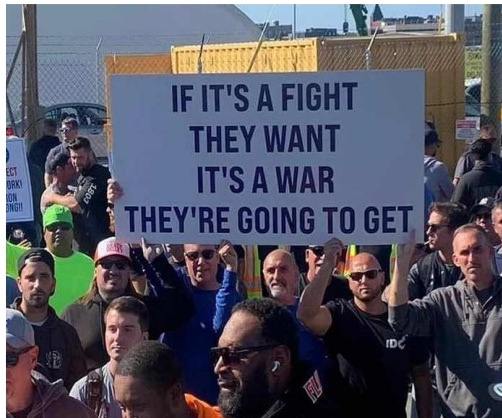
- 협상 결렬로 인한 공급망 중단 우려 확산
 - 스플래시 통신은 이번 협상 결렬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만 10곳 중 6곳이 폐쇄될 것이며 해당 항만의 약 45,000명의 노동자가 파업할 것이라고 발표함
 - 특히 덴마크 항공사인 메르스크는 10월 미국 항만 파업으로 인해 1주일간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에는 4~6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함
 - 또한 덴마크 컨테이너 운송 분석 회사인 Sea-Intelligence 전문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, 정상

운영까지 최소 4~5일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

- 더하여 미국 항만이 파업을 1주일간 지속한다면 11월 중순까지는 항만혼잡을 겪을 것이고, 2주간 지속할 경우 2025년까지 항만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함
- 컨테이너 자문 회사 Vespucci Maritime은 파업으로 인한 항만의 혼잡도 큰 문제이나 이로 인해 운임 상승, 운송 시간 증대 등 소비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함

ILA 조합원 시위 확산

시위 중인 ILA 조합원



ILA 해물드 다젯 사장



자료 : <https://www.marinelog.com/>, <https://www.hansbiz.co.kr/news/> (검색일: 2024.08.16.)

홍해 리스크 지속으로 유럽행 철송 수요 증가 장기화 전망 ... 공급망 다변화 추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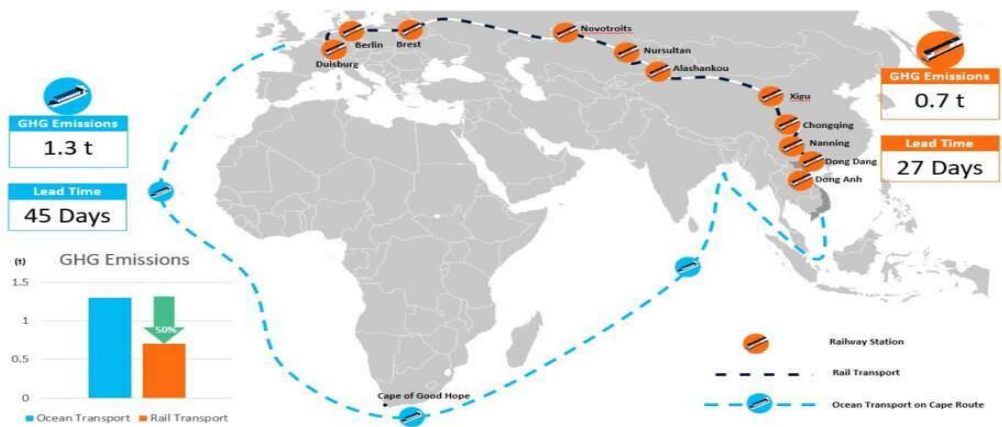
- ▶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해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, 일부 선사들은 희망봉 경유 우회경로 이용 등으로 운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철송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

 - 홍해 리스크 지속으로 해상운임 상승 및 안정적인 물류 루트 확보를 위해 철송에 대한 활용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과 유럽의 철송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% 증가해 약 108만 TEU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
 - 해상 운송의 대안으로 철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화물의 집중으로 적체 및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음
 - 이에 중국 정부는 기존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경로 외에 카스피해를 경유해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잇는 TITR(Trans-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)을 활용하기 위해 해상과 철송을 활용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
- ▶ 중국~유럽 간 철송에 대한 수요 증가로 물동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철송 운임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, 철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

 - 홍해 사태 발생 이후 중국-유럽 철송 운임은 약 6,000~7,000달러/TEU 수준이었으나,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평균 철송 운임은 10,000달러/TEU로 나타남
 - 중국 중부와 동부가 각각 8,000달러와 9,4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11,000~12,000달러/TEU로 10~20% 증가하는 등 향후 철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볼 때 운임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
 - 홍해 사태가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송 서비스 수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철송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물류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- ▶ 글로벌 물류기업은 홍해 사태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철송을 활용한 신규 루트 개발 및 복합운송 확대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제공

 - Maersk는 수에즈 운하를 대신해 철송과 해상을 결합해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Middle Corridor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, 대륙 횡단 운송을 통해 홍해 사태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 전략을 수립함
 - Yusen Logistics는 중국-베트남 철송을 활용해 하노이에서 유럽까지 철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 유럽을 잇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
 - 동 철송 루트는 희망봉을 경유하는 해상운송 대비 리드타임을 18일 단축할 수 있으며,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50%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아세안-유럽 간 해상 운송 및 철송 비교



자료 : www.railway.supply (검색일 : 2024.8.1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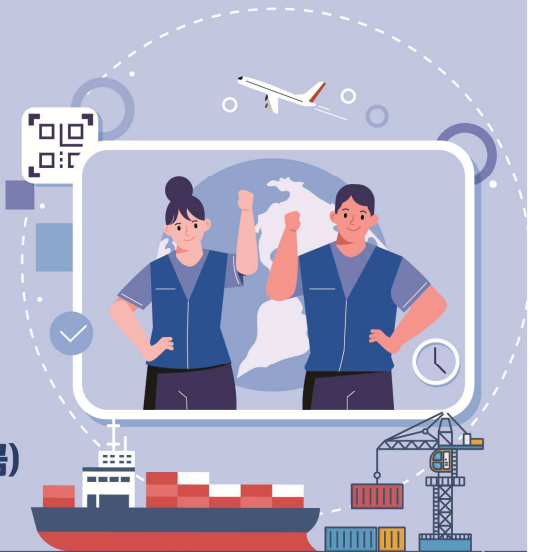
- ▶ 홍해 사태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위해 신규 물류 루트 및 물류거점 구축을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

 - 홍해 리스크가 여전히 글로벌 물류 시장의 큰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상 운송은 운임 상승 및 컨테이너 부족, 항만 적체 등이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
 - 이에 해상 운송의 대안으로 철송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,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철송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및 신규 물류 루트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음
 - 즉,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비용이 증가함에도 안정적인 재고 확보 등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으며, 향후 신규 물류 루트 개발 및 물류거점 구축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

2024년 『우수물류기업 인증』 모집공고

2024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
우수물류기업
인증 모집 공고

2024. 6. 3 (월) - 9. 6 (금)



신청자격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 및 「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(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)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
- 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
 - *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업장별(물류창고)로 인증 신청
- 「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
 -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
 -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
 -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
 -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제출서류

-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
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
-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- 물류창고업등록증(사본) 1부
-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

인증기준 및 절차

-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「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」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「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」에 따른다
- 최종 결과발표(예정) : 2024년 12월 중

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홈페이지(www.kmi.re.kr, 공지 사항)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제출방법 : e-mail 접수(아래 메일 주소 참고)
- 신청 수수료 납부
 - * 신규 인증 : 300만원 정기점검 : 150만원
 - *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
- 문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
 - * 주소 : 606-080,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26 (동삼동)
 - * 담당 : 김동한 전문연구원 (051-797-4913, kdong@kmi.re.kr)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